

## 회원사동정

### 대한전선(주)

#### 이청용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내정

대한전선이 이청용(李清龍·59) 총괄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격하는 등 대대적인 승진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대한전선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유채준 현 대표이사 사장 대신 이청용 총괄부사장을 신임사장으로 내정했다고 지난 1월 5일 밝혔다. 이 신임사장 내정자는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세계전선제조자협회(ICF) 9인평의회 의원직을 역임했고 올해 1월부터 국내외 해외를 총괄하는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회사측은 또 ▲이충호(李忠浩)·김정훈(金正勳)·임종욱(林鍾昱) 상무 등 3명을 전무로, ▲홍승노(洪承魯) 상무보를 상무로 ▲김종원(金鍾遠)·강희전(姜禧全) 이사보급 상무보를 이사급 상무보로, ▲유태길(兪太古)·김성구(金聖九)·김재혁(金載赫)·양재열(梁載烈) 부장을 각각 이사보급 상무보로 각각 승진발령키로 하는 등 총 11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승진인사는 오는 2월말 주주총회를 거친 후 3월 1일부터 정식 발령이 날 예정이다.

한편 대한전선은 품질인증기관인 SGS-ICS 아메리카로부터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대한전선은 최근 안양공장에서 생산하는 황인동선(SCR Rod),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 및 광케이블 등과 시흥공장에서 생산하는 전선류, 케이블 접속자재, 초고압절연물 등 전 품목의 설계 및 생산에 대해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1월 5일 밝혔다.

ISO 14001은 원료조달에서 제조 유통 판매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산 전 과정에 걸쳐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즉 자원소모 대기 및 수질오염 진동 소음 폐기물 처리 등을 최소화하는 환경경영체제(EMS)에 대한 규격이다.

이번에 동사가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대한전선은 국내외에 걸쳐 신인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전선 안양공장은 최근 대한전기협회에서 올진원자력 5, 6호기 납품시 적용되는 전기1급 케이블과 계장용 케이블 제작에 대해 원자력분야 품질자격인증인 KEPIC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 (주)케이디파워

#### EM마크 획득

케이디파워(대표 박기주 <http://www.kdpower.co.kr>)가 산업

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웹 기반 실시간 감시기능을 내장한 수배전반」에 대해 우수품질인증(EM)마크를 획득했다고 지난 12월 25일 밝혔다.

이 회사는 발명특허·KT마크 획득에 이은 이번 EM마크 획득을 계기로 웹기반 실시간 감시서비스인 iKEN 서비스의 보급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회사는 조달청으로부터 디지털 전력계측제어기 절연저항 원격측정기 2건에 대해 「정부조달 우수제품인정」을 획득, 조달청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등 주요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 홈페이지 새단장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한다.

전기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mc.co.kr>)의 수정 및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업시행의 전단계인 직거래 장터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기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정비작업은 B2B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회원사에게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정비작업을 최대한 앞당겨

오는 3월경부터 새로운 홈페이지가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조합은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에 대해 조합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새로운 홈페이지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 LG전선(주)

### 신종 난연케이블 개발

LG전선(대표 권문구 www.lgcable.co.kr)은 트레이(Tray)용 난연전선인 F-CV와 F-CVV를 개발완료하고 올해부터 국내영업을 개시한다.

기존 일반전선인 CV와 CVV에 비하여 난연특성이 우수하고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HCl gas) 발생량도 대폭 감소시켜 트레이에 설치하던 기존의 일반전선은 앞으로 F-CV와 F-CVV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진다.

'99년 12월 「전기설비 기술기준」 改定(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43호)으로 작년부터 트레이(Tray: 전선 설치용 격자)에 포설되는 전선의 경우 화재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난연전선 사용이 권장사항이 되었으나 기존의 난연전선이 30% 이상 高價이고 사용자들의 인식이 부족해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들에 착안, LG전선은 중저가의 신종 난연 제품들을 개발·출시하는 한편 홍보용 카탈로그 배포, 건

축설계 단계 및 건설현장에서의 기술적 지원에 나서는 등 난연전선의 국내 영업 및 판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회사의 관계자는 "신종 난연전선인 F-CV와 F-CVV의 올해 판매 목표를 해외판매 100억원을 포함, 300억원으로 잡고 있다"고 말하면서 "올해에도 지속적인 6 Sigma 품질경영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특성·기능의 난연전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선은 국내전선업체로는 최초로 난연제품으로 日本 도쿄電力의 '제품인증시험 및 심사'에 합격하였으며('98년 8월), 일본 전기종합기술센터인 JECTEC에서 일본제품과의 비교시험을 통해 동등 이상의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편, LG전선은 전선부분의 히팅시스템 사업을 美 Tyco(타이코) 그룹의 Raychem HTS 사에 매각하는 양수도 계약을 지난 1월 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히팅시스템 사업은 전선을 활용한 발열난방 서비스 사업으로 주로 산업단지의 공장들(유화 플랜트, 발전소, 정유회사 등)을 중심으로 Total Service 경쟁 형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규모는 5억불 정도이다.

LG전선은 국내시장점유율 35%라는 위치와 10% 이상의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光통신·부품 등 핵심사업의 집중화 및 미래 성장사업의 육성차원

에서 사업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매각금액은 순자산 및 영업권을 포함, 700만 달러로 인수주체인 Rachem HTS(Heat Tracing System)는 美 Tyco 그룹 계열사로 히팅시스템 부문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45%로 1위를 지키는 업체다.

이 회사는 지난 수년 동안 주요 경쟁업체를 M&A(인수 합병)함으로써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잠재시장인 아시아 지역에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주 경쟁업체인 LG전선의 同 사업부를 흡수하게 된 것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LG전선은 작년 11월 펌프사업을 독일의 월로-샘슨 그룹에 매각한데 이어 또 다시 새해 벽두부터 일부사업을 매각함으로써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구조조정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셈이다.

이 회사 고위관계자는 "올해의 경영방침이 '構造改革(구조개혁)'으로 설정된 만큼 올해에도 계속적인 사업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전KDN(주)

### 경쟁력·수익성 높이기엔 주력

한전KDN(대표 정연동 www.knd.com)은 올해 전력IT부문, 광전송망 분야, 패키지사업, 인터넷

넷사업, IT컨설팅, 무선통신사업 등 시장경쟁력과 수익성이 높은 사업군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시장우위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6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한전KDN은 우선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IT관련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력거래 관련 시스템 개발 및 구축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발전회사의 전력거래용 시스템 개발 및 ISP, 내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전력 e마켓플레이스 등 전력분야의 인터넷사업과 전력 자회사의 솔루션 및 전력거래 컨설팅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IMT2000, 디지털 케이블TV, 전력선 통신망 등 거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규 통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2001년 상반기까지 디지털 케이블TV 관련 네트워크 장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계통자동화 장치기술, 유무선을 이용한 원격검침 상용화 제품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도 늘려갈 예정이다.

또 HFC, MISP, CMTS 등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 고객지원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e마켓플레이스, 원격교육, 인터넷방송, 전자 카달로그, 인터넷 빌링 등 이미 가시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e비즈니스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사업팀 등 e비즈 사업별 전담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e비즈니스 고부가가치 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사내벤처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사내벤처 1호인 인터넷지리정보서비스의 대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대외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내벤처팀의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벤처동아리를 육성, 이의 사업화도 유도할 작정이다.

이러한 사업계획과 더불어 조직문화 쇄신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원의 능력, 실적에 대한 자원관리와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환근무제 및 인력풀(POOL)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기관과의 인력교류도 추진하고 있다.

개발형 인사조직체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직원 연봉제를 도입,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우수 인적자원 영입의 기반을 다져가기로 했다.

또 능력 중심의 인재발탁을 위해 인력풀제를 실시하고 탄력적인 자율근무시간제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직원들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참여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복잡 자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실패사례를 내부에서 공유,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기업문화

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창업동아리, 아이디어뱅크, 사내벤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MCP, OCP, CCNA 등 직원들의 전문기술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 직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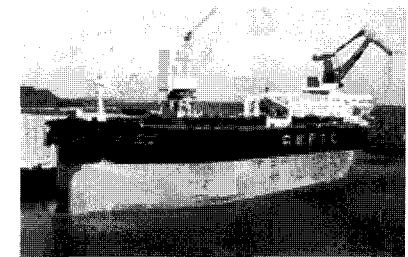
특히 고급 기술 중심의 교육을 통해 기술력을 최대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책임경영과 영업능력을 강화시켜 외부환경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외 영업력 강화를 위해 사업부별로 영업팀을 구성해 공격적인 대외영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현대중공업(주)

### 새해 첫 선박 命名

지난 해 모두 59척, 427톤(G/T)을 인도하여 10년째 건조량 세계 최대 기록을 이어오고 있는 現代重工業(대표: 趙忠彙)이 지난 1월 15일 새해들어 처음으로 선박 命名式을 가졌다.



새해 첫 命名式을 가진 이 선박은 이집트 AMPTC社에서 '98년 10월에 수주한 15만 3천톤(DWT)급 유조선으로 現代重工業 송재병 조선사업본부장과 이집트 AMPTC社의 오보아민(Mr. A. S. Abouamin) 부사장 등 관련 인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잘락(ZALLAQ)]호로 명명되었다.

이 선박은 길이 260.4m, 폭 46m, 높이 24.4m로 現代重工業이 자체 제작한 2만9백마력의 엔진을 탑재하여 15.1노트로 운항할 수 있다.

AMPTC社는 이집트를 비롯 OAPEC(아랍석유수출국기구) 소속 9개 회원국 정부가 공동출자하여 1973년 설립한 회사로, 현재 LPG 운반선 등 8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LPG 및 원유 등을 운송하고 있다.

現代重工業은 이 회사에 '97년 4월 15만 3천톤급 유조선을 처음 引渡한 것을 포함, 총 4척의 계약이 있었으며, 이번 선박은 AMPTC社에 2번째로 引渡한 것이다.

## LG산전(주)

### 2백만弗 규모 콤비 해머드릴 공급계약

LG산전은 최근 이탈리아 최대의 전동공구 제조업체인 스테이어(Stayer S.P.A)社와 3년간 2백만弗 규모의 콤비 해머드릴(모델명: H138)

공급계약을 체결, 유럽지역에 공급하기로 했다.

LG산전과 스테이어社는 전동공구 분야에서 양사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상호 공급·판매할 수 있는 공동마케팅 전략에 합의, 이번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앞으로 다른 전동공구 제품으로 공동마케팅 전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G산전이 이번에 공급할 콤비 해머드릴은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보수 유지 작업이나 배관, 냉난방 작업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공구로서, 지난 '98년 LG산전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제품이다.

LG산전 콤비 해머드릴은 타격과 회전을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회로에 의한 정속유지 장치를 갖추고 있어 부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일정한 속도와 토크(Torque)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이 제품은 안전 클러치 시스템을 채택하여 드릴링(Drilling) 작업중 콘크리트 내부에 숨겨져 있는 철근 등에 드릴이 닿더라도 모터의 회전은 정지하지 않고 드릴 비트만 정지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LG산전의 올해 전동공구 해외매출 실적은 전년 대비 35% 성장한 2천만弗 상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LG산전은 최근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시스

템(Grid-connected Solar Power System)을 「충북과학대학」에 공급했다.

이번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정부(산업자원부)의 2000년 대체에너지 시범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충북과학대학이 시범보급사업 수혜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시공회사인 우리 회사의 협약에 의해 공급하게 된 것이다.

반도체 소자인 태양전지(Solar Cell)를 이용한 발전방식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무한한 에너지원인 햇빛을 직접 전기로 변환하기 때문에 연료가 필요없고 소음이나 고장발생이 적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차세대 청정 대체에너지 발전장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연간 약 30MWh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며 태양광과 한국전력에서 공급되는 상용 전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계통연계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력소비가 많은 하절기 때 전력 절감효과가 더욱 큰 시스템이다.

충북 유일의 도립 대학인 충북과학대학의 에너지시스템과 황인호 교수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전력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 관련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실험 설비로 활용하고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대체에너지 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며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